



3면

민주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전주매일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음 6월 25일) 제33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실내서도 전북 문화체험은 즐거워”

도, 태풍 카눈 영향 따라 캠버리 일정 실내로 변경

전북 체류스카우트 대원들 도내 시·군 등서 마련된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캠버리 문화체험 일정을 태풍 카눈의 영향에 따라 행사 전체를 실내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전북 체류 세계스카우트대원들의 체험활동을 10 일에는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야외 체험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각 소속별 대강당 등 다목적실에서 전통문화 공연 등 실내프로그램으로 변경 진행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전주시 등 체류지 6개 시·군을 비롯해 전북대 등 9개소 관계자들과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립국악원을 비롯해 전주시립 예술단 군산공고 국악예술고 등이 앞장 문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경찰과 소방인력·장비 등도 각각 파견돼 대규모 인원 집합에 따른 만일의 사태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900여명이 대원들이 참여한 전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캠버리 문화체험 일정을 태풍 카눈의 영향에 따라 행사 전체를 실내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북 체류 스카우트 대원들이 각 국기별 전통복장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북대 실내체육관에서는 케이팝(K-POP)공연을 비롯해 비석치기, 한복 공예 등 다양한 전통체험프로그램이 진행돼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김장체험, 호원대 체육관에서는 케이뷰티 페이스 페인팅, 태권도 체험, 댄스 퍼포먼스, 사물놀이 판국 등으로 대원들의 흥을 돋웠다.

도내 체류 스카우트대원이 2,200여명

으로 가장 많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는 태권도 시범, 검무, 노상놀이, 풍물단, 무용단 공연, 케이팝 댄스는 화려한 전통의상인 한복과 춤으로 캠버리 대원들과 출연자들이 무대를 함께 만드는 즉석 무대도 연출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9일 저녁 원광대 문화체육관을 찾아 캠버리대원들과 흥겨운 문화체험을 나눈데 이어

10일 저녁에도 호원대 체육관에서 펼쳐진 공연을 찾아 대원들과 전북에서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캠버리의 마지막 밤을 전북에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과 전북의 문화 우수성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등이 실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0일 폴란드 그단스크시 알렉산드라 돌기에비체 시장(사진 왼쪽)이 전북도를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7 캠버리서 청소년에 꿈·희망 많이 심어주길”

김관영 지사, 차기 개최지 폴란드 그단스크 시장과 환담 돌기에비체 시장, 개최도시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 표시

세계 캠버리 대회 차기 개최지인 폴란드 그단스크 알렉산드라 시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북을 찾아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폴란드 그단스크시 알렉산드라 돌기에비체 시장과 레제크 보나 포모르스키에 주의회 부의장 등 2027 세계 캠버리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전북도를 방문, 김관영 도지사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서 김 지사는 대회 초기 제기된 일부 문제와 태풍 등 비상상황으로 2023 새만금 세계대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12일 폐영까지 대원들이 잔여 일정을 통해 최대한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에서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문화공연에서 “폴란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폴란드 대원들이 태권과 풍물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체험해 보는 등 처음 접해보는 대한민

국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대원들의 과정활동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개최도시와 조직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 개최의 필수 요건”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23대회 경쟁도시였던 그단스크시가 오는 2027년 세계대회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많이 심어주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돌기에비체 시장은 “새만금 세계대회에서 각종 활동을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체험이 이뤄지길 기대했다”며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개최도시 단체장으로서 끝까지 청소년들에게 경험과 추억을 쌓아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2023대회를 개최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알렉산드라 시장은 “캠버리 대회가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최도시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상호 필요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태풍 ‘카눈’ 내습... 농경지 침수·인명피해 최소화

김관영 도지사, 전주 진기들 배수펌프장 찾아 가동상태 등 확인 “인명 등 재난피해 최소화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점검” 강조

김관영 도지사는 제6호 태풍 ‘카눈’ 내습에 따른 농경지 침수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주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찾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전주 진기들은 집중호우시 만경강 외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가 어려워

마을과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구역으로 전주시는 원활한 내수배제를 통해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비 포함 283억을 투자해 지난 2020년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완공했다. 진기들 배수펌프장은 지름 1.35m의

대형펌프 6개와 4만㎡의 유수지로 조성됐으며 집중호우시 분당 1.150톤의 내수를 만경강으로 강제 배수함으로 진기들 일원 마을들을 침수피해로부터 지켜 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태풍 ‘카눈’도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진기들 배수펌프장을 찾아 배수펌프 시연을 통해 가동상태를 비롯해 비상연락망, 매뉴얼 비치 등 대응 체계를 세세히 점검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이어 연일 계속되는 재난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전주시 재난담당 공무원들과 민간 보조자들을 노고를 치하했다.

김 지사는 “혜옥을 뛰어넘는 재난에 대비해 양수기, 배수펌프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정비와 시험가동은 미라미리 철저히 점검해 놓아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